코로나로 고립된 자취학생들에게 공양

日불교 마마케와 클럽, 사찰 공양물 지역나눔

박영빈 객원기자


식료품을 보시하는 마마케와 클럽 회원들.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취직률 감소와 수익감소 등으로 고립된 자취생들과 독거 학생들을 돕기 위해 스님들이 나섰다. 사찰의 불공과 제사에서 사용된 식품과 부식거리를 무상으로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함께 전하고 있다. 3월 19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이웃과 함께하려는 불교계의 노력을 특별 보도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마마케와 클럽'은 일본 도호쿠 지방에 소재한 야마가타(山形)현의 스님들이 발의하여 시작된 식료품 보시 모임이다. '마마케와'는 해당 지역 사투리로 "밥이 왔다"라는 뜻이다.

마마케와 클럽의 발기인 중 한 명인 하리사키 마사히로 스님은 "주지소임을 보고 있는 사찰이 야마가타 현립 대학 근처에 있다 보니 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이 가운데 코로나 19 확산으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들의 영업시간과 영업일 등이 단축되면서, 특히 자취하는 독거 학생들의 가계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식료품 보시를 결심한 계기를 전했다.

마마케와 클럽을 후원하는 정토진종 아마카타 교구 측은 "원래 야마가타현에서는 장례식이나 제사를 지낸 후 바구니에 음식을 담고 꽃 등으로 장식하여 이웃들에게 주는 풍습이 있다. 지금까진 이러한 식료품들을 바자회 등을 통해 판매하고 그 수익을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바자회 등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 학생들의 고충을 들은 스님들의 발의로 마마케와 클럽이 시작됐다. 매달 한 번씩 현내, 각 지역별 사찰들을 지정, 인근 지역 사찰에서 모은 식료품을 법당에서 배포하는 식으로 진행중인 마마케와 클럽은 이미 지역 학생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달 배포를 맡은 신엔지(心縁寺)는 각 사찰에서 보내온 식품들을 분류, 재포장하여 보시를 준비했다. 모인 식품들은 대부분 전통 풍습에 따른 음식바구니에서 준비됐으며, 일부 불전에 올리고 퇴공한 공양물들도 포함됐다.

신엔지 측은 장기간의 보관과 조리의 용의성을 위해 국수, 수프, 라면 등의 간이 조리 식품은 1인분씩 봉투에 담았다. 또한 포장, 쌀과 과일 등의 신선식품은 원하는 만큼 가져 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 마마케와 클럽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농가 신도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신선식품에 대한 신도들의 찬조도 이어지고 있다. 타 종단과 타 지역 간의 연대도 시작됐다.

신엔지에서 식품을 받아간 야마가타 대학의 한 학생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아르바이트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절약을 위해 씨리얼만 먹고 살았는데 사찰에서 식료품을 나눠주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통조림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저장성도 좋아 비상식량으로 용이하다"며 감사를 표했다.

하리사키 스님은 "코로나 19가 계속해서 유행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고립이 문제화 되고 있다. 앞으로 사회를 담당할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도, 지금은 지역이 받쳐주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마마케와 클럽 측은 "식품을 나누고 재활용하는 이 활동은 불교의 자비와 보시행의 실천일 뿐만 아니라 음식낭비의 방지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활동을 설명했다. 다음 배포는 4월 말로, 다음 배포부터는 일정을 달리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일본 대지진 그 이후 10년의 추도

日불교계, 10년 회고 전해


동일본 대지진 10주기 추도식을 봉행하는 쇼간지. 사진출처=야후뉴스

올해로 10주기를 맞은 동일본 대지진.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의 세월 속에 끊임없이 희생자들을 추도해온 일본 불교계가 그간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3월 16일 일본의 '야후 뉴스'는 동일본 대지진 10주기를 맞이해 불교계의 반응을 특별 보도했다.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그 시간에 맞춰 일본 전국의 각 사찰에선 10번의 타종이 진행됐다. 일본불교의 성지인 고야산과 도다이지(東大寺)에서도 특별 천도재가 봉행됐다. 모두 동일본 대지진의 희생자들을 위한 것이다.

10년 전 지진의 진원지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게센누마(気仙沼)시 쇼간지(松岩寺)의 부주지 코구로자와 스님은 "10년 전 그 시간, 신도들과 마침 본당의 대진공사에 대한 회의 중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스님은 "큰 진동이 있은 후 '6m급의 해일이 몰려온다'는 경고방송이 울려 퍼졌다. 신도들과 함께 대피장소로 지정된 초등학교로 대피했다. 대피소와 2채 떨어진 집까지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모골이 송연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묘사했다. 스님은 "바닷가에 줄지어 서있던 선박 연료탱크가 파손돼 흘러나온 기름이 수면 위에서 불타올라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며 당시의 처참함을 전했다.

다행히 쇼간지는 해안가에서 가까웠음에도 고지대였던 덕에 큰 피해가 없었다. 그러나 사찰이라는 특성상 피해 다음날부터 희생자들의 시신과 온갖 협조요청이 들어왔다. 경내는 빈소와 임시 피난소로 사용됐고 스님은 쉴 새 없이 장례식과 천도재를 봉행했다. 스님은 주지스님과 함께 임시 시신안치소들을 돌며 기도를 봉행했다. 당시 토호쿠의 스님들 가운데는 코쿠로자와 스님처럼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시신들 앞에서 염불을 하거나 합동 장례식을 진행했다는 스님들이 많다. 또 피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이끌 거나 구호활동에 매진한 스님들의 활동도 다수 보고됐다.

타 지역에서도 피해자와 희생자들을 돕는 불교계의 손길이 이어졌다. 가두 탁발을 통한 구호금 모금, 피해자 임시 수용 등의 활동이 각 지역 불교계와 사찰을 통해 이뤄졌다. 도쿄의 관광명소인 와코 시계탑 앞에선 10년간 오직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들을 위해 염불하며 구호금을 모금해온 스님도 있었다. 그러나 이 스님은 안타깝게도 지난 1월 코로나 19에 확진돼 입적했다.

일본 불교계는 희생자들을 위해 각 종단의 본산과 지역 사찰들을 중심으로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매일, 또는 지진이 일어난 일시에 맞춰 천도재와 위령기도를 이어오고 있다. 코구로자와 스님은 "이곳 쇼간지는 17세기경 일어난 광산 낙반사고의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전한다. 이래로 그 희생자들을 기려왔다. 마침 동일한 지역에서 지진과 해일로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명복을 비는 추모의 마음을 차세대에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스리랑카, 쿠라갈라 수호 이사회 출범

이슬람 극단주의와 충돌 우려 증가


쿠라갈라 유적 꼭대기에 있는 법당. 사진출처=데일리뉴스

3월 22일 스리랑카의 '데일리 뉴스'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고대 불교유적 '쿠라갈라(Kuragala)'를 보호하기 위한 이사회 출범 소식을 전했다.

쿠라갈라는 기원전 3세기 아누라다푸라 시대 초기 이전부터 전해오는 스리랑카의 불교유적으로 사찰과 불탑 유적이 다수 산재해 있다.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 고대 불교유적을 파괴하고 무허가 건축물을 세워 불법 점거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불교 단체와 협회들이 쿠라갈라 불교유적지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 상황이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쿠리갈라를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거짓 민간 설화를 퍼드리며 불교문화 유산 위에 이슬람 예배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했다. 여기에 이슬람 유적지라는 가짜 안내판까지 설치했다.

1990년 스리랑카 법원이 무허가 건축물 철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시설이 남아 있었다. 2013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고고학 조례 권한을 이행해 고고학 보호구역 내 모든 건물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으나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현지에서 존경받는 와투라쿰부레 담마라타나 스님이 쿠라갈라 유적의 보호 및 불교문화 유적지로의 개발을 위해 쿠리갈라 보호협회를 창설, 이사회를 발족했다.

스님은 "쿠라갈라의 보존과 발굴 작업은 모두 이 보호협회의 이름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불교유적지로서의 면모를 세우기 위해 현재 높이 30미터의 임시법당을 건설하겠다"라고 밝혔다. 스님은 오는 3월 28일 임시법당에서 포살법회 봉행하고 초석 안치식을 통해 본격적인 유적 보존과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김민재 객원기자

캄보디아, 승려모욕죄로 언론사 고소

불교명예와 존엄성 훼손 근거, 언론허가 취소


'펑 반나크(Pheng Vannak)뉴스'의 대표 펑 반나크(52)가 핀 셈 스님께 참회하고 있다. 사진출처=펑 반나크 페이스북

캄보디아의 '크메르 타임즈'는 3월 23일 승려 모욕죄로 한 언론사 대표가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치트 소콘(Chhit Sokhon) 문화종교부 장관은 3월 22일 칸달주 지방검찰청에 서한을 보내 승려를 모욕하고 차별을 선동하며 살해 위협을 가한 혐의로 '펑 반나크(Pheng Vannak)뉴스'의 대표 펑 반나크(52)에 대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소콘 장관은 "3월 14일, 반나크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 '펑 반나크 뉴스'의 SNS 페이지에 리치 보어 파고다(Reach Bou Pagoda)의 주지 핀 셈(Pin Sem) 스님과 불교를 비하하고 스님에게 총을 쏘겠다는 위협영상을 게재했다. 이에 법률에 따라 기소한다"고 밝혔다. 반나크 대표의 죄목은 승려모욕죄, 차별선동죄, 살해협박죄 등이다. 반나크의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3월 18일에는 캄보디아 정보부가 펑 반나크 뉴스의 언론허가를 취소했다.

한편 반나크는 앞서 해당사찰에서 있었던 스님의 불자 폭행사건을 언급하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그는 "한 스님이 사찰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불자를 나뭇가지로 때리는 영상을 제보받았다. 잔혹한 폭력을 본 언론인으로서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이를 보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다음날 사원을 방문, 체벌용으로 사용되던 나뭇가지 묶음을 다량 압수했으며 주지스님께 알려 해당 사건을 종결하도록 중재했다.

반나크 대표는 "나는 사찰, 탑, 학교 건축 등의 불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불자지만, 폭력을 일삼는 승려는 용납할 수 없었다. 모든 승려를 모욕하거나 불교의 명예를 훼손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